

씨어스

Sell-On이 아니라 글로벌 확장 전략의 신호탄

중동 파트너와 3년 220억원의 최소 공급계약 체결

UAE 최대 헬스케어 그룹인 Pure Health의 디지털 헬스 자회사인 One Health와 3년간 최소 1,470만달러(약 220억원)의 모비케어 유통계약 체결. 최소 공급수량은 모비케어 105,000대로, 수출단가는 약 140달러로 추정. '26년 하반기부터 Burjeel Hospital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될 예정.

Sell-On이 아니라 글로벌 확장 전략의 신호탄

동사는 모비케어(외래환자 및 건강검진 환자 심전도 분석)로 진입한 후 씽크(입원환자 모니터링)까지 확대하는 품목 확장 전략과 UAE에서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지역, 나아가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등 지역 확장 전략의 두 트랙 전략 전개하고 있음. 이번 거래는 글로벌 확장 전략의 신호탄.

일차적으로 이번 공급계약은 모비케어 수출로 인식되며, 계약대로 공급이 진행될 경우, '27년부터 모비케어 매출은 최소 150억원대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참고로 '25년 모비케어 매출은 50억원이며 '26년은 64억원(30% YoY)으로 추정.

추가적으로 모비케어(건강 검진용)는 SEHA 클리닉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씽크는 아부다비 SSMC 병원에서 개념 입증(PoC)을 완료했으며, 파일럿 이후 병상 단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 품목 확장을 통해 병원-외래-검진-재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합 환자 관리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품목 확장은 2026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중동 시장 병상수는 80만 개(국내 70만 개)이나, 국내시장 대비 고혈압·심혈관질환 환자 규모가 약 3배 수준이며, 심전도 관련 의료 수가가 국내 대비 최대 4배까지 크다는 장점이 있음. 동사는 중동에서 모비케어와 씽크의 시장 기회만 26.5억달러(약 3.9조원)으로 추산.

동사의 주가는 공급계약 발표 이후 오히려 종가 기준 6.56% 하락하며, 12개월 선행 P/E 기준 27배로 전고점(38배)대비 저평가 상태.

최근 동사의 주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사업 불확실성 확대와 원가 상승 우려,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되고 있음. 이번 거래는 동사의 주가 압박 요소 중 하나인 해외 사업 불확실성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 국내 경쟁 심화 우려도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 나갈 것. 동사의 예상 실적 발표일은 5월 12일.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씨어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